

이의리 부진은 '완성형 선수'로 가는 성장통



KIA 이의리가 WBC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두번째 국제 대회 WBC서 불넷 3개 허용... "잘 못싸워 아쉬움"
KIA-두산 시범경기, 스피드 호평... "직구 제구력·체력 단련 중점"

KIA타이거즈 이의리가 "WBC를 이기고 최대한 빨리 완성형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의리는 프로 2년 차였던 지난해 10승 투수가 되면서 KIA의 차세대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했다. 그만큼 자신의 첫 포스트시즌과 도쿄올림픽에 이어 선발된 두 번째 국제 대회 WBC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이의리는 큰 무대에서 연달아 고개를 숙였다. 예상과 달리, 애초 예정과 다른 상황에서 역할을 맡는 등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한 만큼 이의리는 '실력 부족'이라고 돌아봤다. WBC 일본전 당시 단거리를 뛰면서 출격을 준비하고 있던 이의리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급히 마운드에 투입됐다. 155km의 강속구를 찍는 등 사람들을 놀라게 한 스피드로 탈삼진 하나를 뽑기는 했지만 정교한 승부를 하지 못하면서 3개의 불넷도 허용했다. 이의리는 "간절했지만 간절함이 통하지 않았다. 투지로 던졌지만 한계가 있었다. 많이 부족했다"며

"급히 올라가면서 잡생각이 많았다. 세계만 던지자는 생각이었다. 싸우려고 던져야 했는데 싸우지 못해 아쉬웠다"고 돌아봤다. 실패를 경험한 이의리는 지난 19일 두산과의 시범경기를 통해 2023시즌을 위한 새 출발선에 섰다. 이날도 제구가 아쉬웠지만 최고 구속 151km, 평균 구속 147km를 찍는 등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을 커졌다. 이의리는 "WBC 대회 때 팔이 잘 뻐었다. 팔 스피드가 되게 빨랐다. 몸이 빨라진 것 같다. 팔이 싱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며 "구속이 잘 나오고 있지만 구속 욕심은 없다. 겨울부터 목표했던 게 안정이었다. 그런데 WBC 뻐하고 급했던 것 같다. 차근차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지금도 감이 떨어진다. 감이 잘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 실전을 치르면서 밸런스, 감을 잡는 게 속제가 된 이의리에게는 이날도 풀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의리는 "1이닝만 던지다가 (시범경기에서) 2이닝째 올라가니까 힘들었다. 한 경기를 치른 느낌이었다"고 언급했다.

속제는 남았지만 스피드와 함께 체인지업은 이의리에게 힘이 된다. 이의리는 첫 시범경기에서 15개의 체인지업을 구사했다. 슬라이더는 5개, 커브는 2개. 신인 시절 체인지업으로 승부했던 이의리는 지난 시즌 체인지업 감을 잃으면서 고민했었다. 이의리는 "경기 며칠 전 캐치볼 했을 때 느낌이 좋았다. 옛날에 던지던 느낌이 났다. WBC에서 사용한 볼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큰 공을 잡다가 작은 것 잡으니까 그 느낌이 있다. WBC 공을 계속 잡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새 시즌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직구 제구와 장기 레이스를 위한 체력이다. 이의리는 "슬라이더는 원래 좋았고 변화구는 잘 되는 데 이제 직구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성장과 정일 수 있다"며 "좋지 않았던 상황을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 한다는 게 부끄러운데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싸우려고 했지만 실력이 부족했다. 내 잘못으로 상황에 대한 준비가 잘되지 않았다"며 "생각이 많이 비웠다. 최대한 경기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진짜 간절하게 잘하고 싶다. 미완성 이의리지만 최대한 빨리 완성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완전체 '클린스만호' 본격 출격 준비

25명 전원 합류...내일 콜롬비아전 대비 첫 전술 훈련

비로소 완전체가 된 1기 클린스만호가 첫 전술 훈련을 하며 본격적인 출격 준비에 들어갔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워르겐 클린스만(독일) 신인 감독과 새팀을 출발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22일 오전 파주 NFC(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 이후 사흘째 훈련을 이어갔다. 클린스만 감독은 24일 콜롬비아(울산문수축구경기장), 28일 우루과이(서울월드컵경기장)와의 친선경기로 한국 대표팀 사령탑 데뷔 무대를 가진다. 파주NFC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첫 부름을 받은 25명이 모두 모였다. 전날 오전에 김민재(나폴리)가 입국하고 오후에는 이강인(마요르카), 이재성(마인츠),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 도착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25명의 클린스만호 1기 멤버들이 '완전체'를 이뤘다. 이날 훈련장에는 소집 이후 실내 운동으로 컨디션을 조절해온 권경원(감바 오사카)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권경원은 따로 훈련했지만 25명이 함께 훈련에 나선 것은 소집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 주말까지 소속팀에서 경기를 치르고 합류한 터라 소집 첫날인 20일 대표팀의 훈련은 회복에 중점을 뒀다. 황인범(울림피아코스) 등에 따르면 초반 15분만 취재진에 공개하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한 21일 훈련도 선수들이 다 합류하지 못한 상황이라 전술적 준비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소집 사흘째인 이날도 훈련은 초반 15분만 취재진에 공개된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앞으로

다가온 콜롬비아전에 대비해 처음으로 전술 훈련을 지휘했다. 선수들도 이날 훈련에 앞서 클린스만 감독과 전술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편하게 대해주려고 해 밝은 분위기 속에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새 사령탑에 심어줄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긴장은 늦추지 않았다. 이날 훈련 그라운드에는 전날까지는 없었던, '바둑판'처럼 구역을 나눈 선들이 그려져 있었다. 선수들의 위치나 전술적 움직임 등을 명확하게 익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훈련에서는 손흥민(토트넘), 조규성(전북), 김민재 등 카타르 월드컵 주축 멤버를 위주로 한 팀을 꾸리고서 이후 몇몇 선수들을 바꿔가며 호흡을 맞춰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팀은 슈팅 훈련으로 1시간 30분가량의 담금질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회기(아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이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평가전 대비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팀은 24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A매치를 치르고, 28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日, 14년만에 WBC 우승

미국과 결승전 3-2 전승 우승...오타니 투·타 맹활약 MVP

일본이 전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호화 멤버로 팀을 꾸린 '야구 중가' 미국을 제압하고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승했다. 일본은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린디포 파크에서 열린 결승에서 미국을 3-2로 따돌리고 2006년, 2009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이자 14년 만에 WBC 정상을 밟았다. 선발 이마나가 쇼타(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를 비롯해 7명이 이어 던진 일본 마운드는 이날 선발 타자 기준 2억달러가 넘는 미국의 막강 타선을 산발 9안타 2점으로 틀어 막고, 견고한 방패의 위용을 전 세계에 떨쳤다. 그러나 미국은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볼에 날카로운 스플릿 핑거드 패스트볼(스플리터)로 무장하고 짧게 이어 던진 일본 마운드에 철저히 막혔다. 극적인 한 방으로 두 나라를 결승에 올린 트레이너(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무라카미 무네타카(야쿠르트 스왈로스)의 홈런포로 결승의 막이 올랐다. /연합뉴스

일본은 2회에 안타 2개와 볼넷 1개로 역은 1사만루에서 라스 나바(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1루수 땅볼 때 2-1로 전세를 뒤집었다. 일본은 4회말 오카모토 가즈마(요미우리)의 좌중월 솔로 홈런으로 3-1로 격차를 벌렸다. 미국은 도고, 다카하시 히로토(주니치 드래곤스·5회), 이토 히로미(닛폰햄 파이터스·6회)를 상대로 고전하다가 7회초 일본 닌자 번째 투수인 사이드암 오타 다이세이(요미우리)를 상대로 결정적인 추격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선두 타자로 나온 제프 맥클(뉴욕 메츠)의 볼넷, 무키 베츠(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좌전 안타로 이어진 무사 1, 2루에서 트라우트가 우익수 뜯공, 폴 골드슈미트(세인트루이스)가 유격수 병살타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대회 7경기에서 타율 0.435(23타수 10안타), 홈런 1개, 2루타 4개에 8타점과 볼넷 10개를 남기고, 투수로 2승 무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86에 탈삼진 11개를 올린 오타니는 WBC를 투타 겸업의 독무대로 장식하고 최우수선수(MVP)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나상호 "대표팀 주축으로 책임감 커"

황인범·김민재·황희찬과 96라인... "해외 진출 생각 있다"

"1996년생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첫 소집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나상호(서울-금호고 출신)가 남다른 마음가짐을 전했다. 나상호는 22일 오전 파주 NFC(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님이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주신다. 처음 보았는데 엄청 밝고 웃음도 많으신 분이"라며 "오늘부터 전술적인 부분을 맞춰야 하므로, 오늘 훈련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에 발탁돼 A매치 26경기(2골)를 치른 나상호는 이번 클린스만호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상호는 "새 감독님이 선임되면 나쁜 아니라 모든 선수가 자신의 장점을 잘 보이고, (감독의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모든 선수가 '황태자'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 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주전 자리를 위해 대표팀 내에서 꾸준히 경쟁해야 하는 가운데, 나상호는 이날 12일 울산 현대-FK서울의 K리그 경기를 관전한 클린스만 감독 앞에서 득점포를 가동해 이미 한차례 인상을 남긴

바 있었다. 그는 "일단 감독님이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다. 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라든지, 마무리를 짓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상호와 함께 현재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황인범(울림피아코스), 김민재(나폴리), 황희찬(울버햄프턴) 등은 모두 1996년생이다. 국내의 무대를 누비는 이들은 현재 축구 대표팀에선 '주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해외 진출 생각도 하고 있다는 그는 "(황)의조(서울) 형과도 소속팀에서 이야기했고 인범이와 민재, 희찬이와도 적응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도 빨리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도전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